

2018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8년 3월 29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윤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현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천 병 철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 <의안 제11호 - 2017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7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 시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경제동향 파트를 기존의 17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줄이는 대신 연차보고서에만 공개되는 당행의 업무현황과 경영상황 파트를 충실하게 작성하였음. 이는 경제동향의 경우 당행의 여타 정책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연차보고서에 경제동향을 신지 않거나 싣더라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당행의 업무수행 내용과 경영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또한 연차보고서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주된 독자층이 일반 국민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쓰고 그래픽과 사진 등 시각자료도 대폭 보강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들은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업무를 설명함에 있어 2017년 중 특이사항 이외에 당행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추가로 기술하여 독자들에게 당행의 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지난 2월 체결된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이 본문에 언급 없이 <참고> 박스에만 기술되어 있는데 본문에도 주석을 추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경제일지에 금리인상 결정 이외에도 금리동결 등 여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관련부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2017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7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 나. 보고안건

### <보고 제2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지수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취약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안정지수와 함께 다양한 거시, 미시 지표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안정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함으로써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에 더해 빅데이터(big data) 활용 등 보다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중이 현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등 점차 선진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로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정부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거시건전성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LTV, DTI 규제강화 지역의 경우 동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한 데도 LTV, DTI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LTV, 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관련하여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scenario)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전체 익스포저(exposure)를 대상으로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지수 15% 하락에도 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택시장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주택가격 하락 충격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택의 스톡(stock), 플로우(flow), 가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는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이외에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조정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서베이(survey)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이외에 엄

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이 높고 확대속도 또한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음으로 「한계기업 현황 및 특징」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한계기업 여신 분류에 있어 감독규정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 일선 은행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일부 위원은 향후 경기순환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경영행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좀비(zombie)기업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기업부문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 시 한계기업 만성화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공동검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계기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준비 중이며 동 보고서 작성 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중요하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잘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당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현재 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지성 충격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영란은행의 사례를 참조하여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충격 시나리오 하에 전체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그 결과도 정례적으

로 발표하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아가 스트레스 테스트 강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 능력과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다른 위원은 현재 당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당국과의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지난번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와 주택가격의 복합 충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내외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에 비은행을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나리오도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거시경제와의 연계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위원은 앞서 발언한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 거시경제 상황 변화를 가정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다른 위원은 이를 위해 당행의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평가 모형인 SAMP(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of Macroprudential Policy)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형을 결합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다만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동 위원은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영란은행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부채뿐만 아니라 외화자산이 원/달러 환율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경우 앞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외국인 및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화자금 수요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및 환헤지(hedge) 수요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해서는 조기경보 지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환스왑레이트 등 파생상품 지표를 동 지수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은 정책기관으로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이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점검 내용이 아닌 한국은행 분석 자료로 오해하여 다룰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보도자료에 ‘금안회의 논의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보도자료를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다른 위원도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더해 보도자료에 정책방향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기자설명회시 동 사항들에 유의하여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법정보고서이며 이번 금안회의는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점검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서의 현안점검 사항으로 가게 및 기업 부채를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전제하에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가게부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은 부채수준이 적절한지, 가게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가게부채 수준과 연계된 가게부문의 재무건전성 및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 및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 자료 등 가게부문 통계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통계청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당행이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보다 주목을 덜 받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지만 규모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부채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과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방향이었는데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그러한 전제가 맞는지 또한 한계기업의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었던 좀비기업의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 및 기업 부채 상황에 대해 계속 점검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한계기업과 관련해서는 공동검사에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한계기업의 존속 이유와 관련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첨언하였음.

###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지속.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

###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 가. 신용시장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업신용은 다소 확대.

가계신용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대책(10.24)의 본격 시행과 자본규제 개편 등으로 증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

향후 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증대될 가능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업황 호조, 경영합리화 노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

다만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가 향후 수출 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나. 자산시장

장기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가격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도권 및 지방이 차별화된 움직임

#### 다. 금융기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산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대체로 제고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일부 업권의 경우 규제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약될 소지

##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자금은 2018년 1-2월중 미 증시 급락 등에 따른 주식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으로 꾸준히 유입.

##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과 대외지급능력이 더욱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

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노력이 지속될 필요

## 3.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단계(8-22)를 계속 하회.

금년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2018년 2월중 2.8).